

## 새해 수출키워드 'G2·메이크 워드'

KOTRA 'G2 리스크 관리·포스트 G2 개척', 현지기업과 협력 '메이크 워드 전략' 강조

###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올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최대 과제로 'G2 리스크 관리'와 '포스트 G2 개척'이 꼽혔다.

특히 글로벌 신보호주의 확산과 자국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현지기업과 협력하는 '메이크 워드(Make with)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KOTRA는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정착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맞춰 G2 리스크 관리와 포스트 G2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 등을 기업들의 과제로 제시했다.

#### ▶ 관련기사 2면

이와 관련해 KOTRA는 한-미 FTA 재협상, 한-중 서비스·투자 FTA 협상 등 G2 리스크 관리 현안을 예의주시하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북미국가연합(CIS), 중남미로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국제통상환경의 뉴 노멀(New Normal)'을 주제로 기존연설을 진행, 주요 국가의 경제와 글로벌 교역 등에 대한 전망 등 통상 환경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조망했다.

이어 10대 권역별 KOTRA 지역본부장이 직접 각 시장 상황과 진출 전략 등을 집중 조망했다.

특히 G2 리스크와 신보호주의 등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응한 신시장 개척, 수출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미국시장 진출전략 수립 시에는 한-미 FTA 재협상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수득 KOTRA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현지법인·제조공장 설립, 전략적 인수합병(M&A) 모색 등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정부 간 공조를 바탕으로 반덤핑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 화학 등 품목에 대한 사전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의 경우 사드 갈등이 봉합되며 전년 대비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6.5% 수준의 중속성장 지속, '제조 2025' 정책으로 대표되는 중국기업의 자체 부품조달 확대와 기술력 향상, 환경규제 확대 등으로 반도체, 전자부품 등 중간재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

상거래, 실버, 환경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통관, 인증, 환경단속 등에 대비, 철저한 경영 리스크 관리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OTRA는 글로벌 신보호주의 확산과 자국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단순 완제품 수출이나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메이크 인(Make in)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합작·기술제휴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과 해외 파트너의 상생과 호혜를 추구하는 '메이크 워드(Make with)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2017년 신보호주의와 사드 여파에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했으며, 올해도 4.8% 전후의 수출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KOTRA는 G2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국가별 다양한 기회요인을 발굴, 제시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ube@



2016년 1월과 2018년 1월의 휘발유값

2016년 1월과 2018년 1월의 휘발유값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던 2016년 1월 경기 부진 원미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1255원/L, 경유는 1015원/L에 판매하고 있다. 한 국석유공사의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397.63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3주째 국제유가가 상승한 지난 7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선 휘발유가 1968원/L, 경유가 1768원/L에 팔리고 있다. 1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8원 상승한 1544.9원/L을 기록했다.

## 유가상승세 지속, 전기차 기회되나

연료비 저렴한 전기차 선호도 높아질 듯

올 한 해 국제유가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전기차의 저렴한 충전요금 효과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기간 연장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국가별 다양한 기회요인을 발굴, 제시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연기관차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기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떠오를 정도로 충분히 충전인프라를 확보했고, 전기차 성능도 내연기관차에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현대모비스가 대학생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697명이 전환 경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중 51%는 '연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차량을 구매할 때 연비의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비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기업의 매출 감소, 원가상승 등으로 7.56%의 투자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반대로 전기차 산업만을 놓고 본다면 유가 상승은 청신호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비 절감효과가 커지는 덕분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차의 유류비와 비교해 월등히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 환경부는 100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휘발유차는 1만1448원, 전기차는 1132원(완속충전 요금 기준)이 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료비가 10배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최근 23주 연속 가격이 오른 휘발유 가격은 1분기 안에 리터당 16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로 인해 올해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연료비 격차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1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에 도달했을 당시를 기억하는 소비자들은 일찌감치 전기차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300km대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ee@

## 한전, 올 송변전예산 '건설 늘고 운영 감소'

건설 전년비 3500억 ↑, 운영 1130억 ↓...전력구입비 큰 폭 상승 전망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발전비용이 증가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발전연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2015년 평균 톤당 57.56달러에서 2016년 66.03달러, 2017년 88.30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유가상승 추세를 보면 유연탄 가격

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4월부터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높아진다.

RPS 비용증가와 3월부터 6월까지 노후석탄 발전중단 등 전력구입비 증가요인이 많아지면서 한전은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전의 투자예산은 '건설 예산 증가, 설비 운영예산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송변전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300억원가량 증가했다. 눈여겨볼 것은 건설예산의 큰 폭 증가다. 건설예산은 지난해보다 3500억원 증가한 1조

8130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운영예산은 지난해보다 1130억원 줄어든 97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진행될 사업건수를 보면 준공 사업 212건을 포함해 822건에 달한다.

배전분야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약 2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예산으로 분류하는 설비보강 및 지중이설은 약 1조 2500억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중화 예산이 1880억원, 선로보강 등 배전계획 예산이 3200억원 책정됐다.

유희덕 기자 yuhd@

**2018**  
1월 18일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친환경+스마트'

세계 최고 공항의 성공적 완공에 (주)한라의 앞선 기술력이 함께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전기공사 완공 준공”

작은 의문에서 완벽을 찾고  
내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라의 변치않는 기준입니다.

Forever You

Halla 주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TEL 02)3434-5114 FAX 02)3434-5908  
www.halla.co.kr

·제2여객터미널 전기공사 공동도급사 : **신본** **기린** **태호이앤씨(주)**